

孫 “충청·친노 이탈 막자” 분주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집안 단속'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자유신당에 눈길을 주고 있는 충청권 의원들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친노 그룹 의원들의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집단 탈당 움직임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적 태도가 우세한데다 호남 및 정동영 그룹의 불만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아직까지 '불안한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손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충북 청주로 내려가 이회창 신당 참여 여부를 놓고 술렁이는 충북 의원 8명과 만난 겸 겸담담회를 가졌다. 이어 15일에는 인천 지역 의원들과

‘탈당설’ 충북 의원·수도권 의원 등 만나 설득 쇄신과 “실용노선에 동감” 일단 지켜보겠다

오찬을 함께 했다.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지도부 경선을 주장했던 쇄신과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일정 정도의 효과도 나타났다. 충북 지역의 김종률 의원은 지난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손 대표의 중도 실용 노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도권 쇄신과 일부 의원들도 불만을 누그러뜨리며 손 대표 체제의 당내 쇄신 작업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여기에 이해한 전 국무총리의 탈당으로 추가 탈당이 접쳐졌던 친노 그룹도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당 창당 불가 발언에 이어 손 대표가 참여정부 '개국공신'인 신계륜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데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내부 동요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친노 그룹 가운데 유시민 의원이 조만간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도권 초선인 이

계안 의원은 이날 18대 불출마와 함께 탈당을 선언했다.

충북지역 의원들도 아직 정국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고위원 인선을 앞두고는 호남권과 정동영, 김한길 그룹 내부의 불만이 가득하다. 이에 따라 손 대표는 최고위원 인선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쇄신과 체제 안정이라는 양날의 칼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 핵심 관계자는 “쇄신과 안정,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양바퀴 같은 것”이라며 “어려운 걸음을 청취하고 있어 최고위원 인선에는 2~3일은 더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인천 부평구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4·9 총선 광주·전남 누가 뛰나

전남 중부권

강진·완도

인구하한선이 무너짐에 따라 '영암+강진+완도' 형태로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다.

신당 이영호 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해양수산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 의원은 아직까지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에 맞서 신당에서는 김영록 전남도행정부지사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 94년 관선 강진군수, 그리

이영호 재선길 김영록씨 도전장

인구 하한선 무너져 '영암+강진+완도' 가능성

최시영·신현호·곽동진씨 신당 공천 경쟁 치열

고 95년 완도군수를 역임한 김 부지사는 이미 출마기념회를 마쳤으며, 오는 17일 공직을 사퇴한 뒤 표 발같이 나선다. 전남도청 민원실

장을 역임한 신현호 신당 전남도당 조직위원장도 공천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영 전 정동영 대선 캠프 광주

대변인도 신당 공천경쟁에 뛰어 들 예정이다. 언론인 출신인 최 전 대변인은 대선 이후 얼굴알라기에 주 령하며 표심을 다지고 있다. 곽동진 신당 서남해안개발지원 특 위위원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발같이 나섰다. 민주당과 한나 라당, 민주노동당 입지자는 아직까 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상태.

담양·곡성·장성

신당의 원내대표인 김효석 의원이 16·17대에 이어 3선을 노리는 지역구다.

그러나 인구가 농어촌지역 인구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담양+곡성+구례', 또는 '영광+장성' 등으로 분산·통합이 예상되고 있어서 많은 변수가 접쳐지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분구가 예상되는 광산구로 지역구를 옮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선거구 개편 변수... 입지자 몰려

'3선 도전' 김효석씨, 분구면 광산 출마 가능성

최형식·고현석·국창근·김정범씨 등 표발같이

벌써 5명이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표발같이 나서고 있다. 신당에서는 최강현 전 방송기자 협회 기획국장, 김정범 변호사 그리

고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이 예비후 보로 등록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낙선 했던 고현석 전 곡성군수도 출마

가 접쳐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창근 전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무소속으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김갑환씨가 지난달 말 예비후보 로 등록하고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동신 前 장관 “광주 북갑 출마 변함 없어”

4·9 총선 현장

서구를 출마설 일축

○광주 북구갑 출마를 선언한 김동신 전 국방장관이 선거구를 광주 서구으로 옮길 것이라는 루머가 최근 지역 정치권에 돌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이를 강력 부인하고 나서는 등 진화에 부심.

민주당 북구갑지역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역 정계에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의 총 선 출마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분 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서구출마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루머를 일축.

김 전 장관 측은 “이같은 루머가 돌고 있는 것은 북구갑 지역에서 유언비어에 의해 상대적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세력의 음해공작 때문”이라며 “선거구가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

장병완 장관 내달 5일 사퇴

○이번 총선에 출마할 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다음달 5일 일제히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

현재 지역 출마를 고려중인 인사들은 광주북구갑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과 광산 또는 함평 출마 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용섭 건설 교통부장관, 서구갑을 노리고 있

는 조영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그리고 광주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김영룡 국방부 차 관 등 4명.

최근 광주를 방문한 장 장관은 “선거법상 사퇴마감 시한인 다음 달 9일이 토요일이고, 6~8일이 설 연휴라는 점을 감안해 5일 사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언.

박주선 前의원 사무실 개소

○광주 동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주선 전 의원이 15일 동구 학 동 삼거리에 사무실을 열고 표발 같이 본격화.

그동안 각 동별 당원 간담회를 갖는 등 말바다 여론을 수렴해 온 박 전 의원은 “이제부터 지역발전 의 희망찬 대장정에 온 몸을 던지 겠다”고 포부를 피력.

이승체씨 남구 출마

○이승체 변호사가 15일 광주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

지난 7일 4·9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변호사는 이날 “동사무 소 말단 직원에서 판사까지 지낸 경력과 능력을 활용, 광주 남구 발 전에 기여하고 싶다”면서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번이 마 지막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할 생 각”이라고 출마의 변을 피력.

최형식씨 행보 본격화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담양·

장성·곡성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행보를 시작.

3선 도의원 경력을 지닌 최 전 군수는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죽 어가는 지역경제를 제도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

김희갑씨 남구 출마 표명

○김희갑 국무총리실 정무수 석비서관이 광주 남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

김 비서관은 최연소인 33세의 나이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의 정활동을 펼쳤던 경험과, 국무총 리실에서 근무하며 구축한 정부 인맥을 활용해 남구의 발전을 도 색하겠다고 출마 의욕을 표명.

송병태·김경천씨도 분주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인지도 높이기 위해 나서려는 총선 출마 예 상자들의 행보가 본격화.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은 지난 11일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사무소를 열고 “일하며 연구하는 국회의원상을 정립하겠다”면서 총선 출마를 15일 공식 선언했고 김경천 전 의원과 남평오 김근대 의원 특별보좌관도 지난 14일 각 각 예비 후보로 등록.

/홍행기자 redplane@ /담양=정필수기자 bungy@ /김지을기자 dok2000@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는데도 선병마에 정실드린 비를들 당하여 차려드립니다.

떡양한과

☎ 1011-383-8283

베이징 키오야

중국을 위한 영웅하는 요리사, 11년째 양정동에서 요리하는 1세대 요리사! 믿어주시기만 하면 맛있게 요리해 드립니다.

북경 동 오리구이

각종 단체 제모임 필수 (대형 룸 판매)

☎ 872-6282